

Responsible Technology

(Stephen V. Monsma 저/Michigan : W. B. Eerdman 1986)

권용세

I.

현대 사회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의 영향력은 새삼스레 말할 필요가 없다. 혹자는 공포의 질병이 퇴치되고, 단조로운 일에서 해방되고, 먼 거리도 가까워지고,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는 등의 인류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면에서 테크놀로지를 찬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비인격화 하고, 부존자원을 낭비하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무기를 통한 대량살상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테크놀로지를 악평하기도 한다. 그래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장미빛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그 이면에 드러난 문제들로 비판적인 전망 가운데 테크놀로지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으나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개발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기대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테크놀로지 발달의 이면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테크놀로지를 제어하거나 신중히 사용하는 것인지 의문이 대두된다. 본 저서명인 'Responsible Technology'는 '책임질 수 있는 기술공학'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그 말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측면을 다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테크놀로지든지 아니면 앞으로 개발될 테크놀로지든지 간에 하여튼 어떤 새로운 방식의 사용을 의미한다. 그 새로운 방식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계(창 1:28)에 대한 책임 있는 대리인으로서 테크놀로지를 수행해 가는 것이다.

II.

본서의 전체를 조감해 본다면, 1장에서 3장까지와 4장의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잘못 이해되고 발달되어 왔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2장에서는 기술을 적절하게 이해하여 책임있는 기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선 기술에 대한 여러가지 정의들을 비교 검토한다. 그리고 기술에 대해 타당한 기독교적 이해와 기술에 대한 인간의 적절한 대응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기술을 '인간이 그들의 실질적인 귀결이나 목적을 위해 도구나 과정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형성시키거나 변형시킴으로써 하나님에게 대한 응답으로서의 자유와 책임을 행사하는 매우 특징적인 인간의 문화행위'로 정의한다. 이렇게 테크놀로지 자체와 그 도구와 산물은 가치중립적이고 단지 그것의 사용에만 인간의 가치 판단이 개입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한 견해에 따르면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원리나 규범 등이 도입될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러나 3장에서는 테크놀로지 자체도 가치중립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줌으로써 규범이나 원리들이 도입되어야 함을 보

여준다.

4장과 5장에서는 오늘날 테크놀로지를 이끄는 잘못된 사상들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테크놀로지를 수행하도록 규범적 원리들을 전개시킨다. 하나님께서는 문화명령을 통하여 인간이 피조 세계를 충만한 경지까지 발전시키도록 문화적 대리자가 되게 하셨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과 세속화는 인류 문화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적 줄기이다. 인간들이 문화적 목표와 전개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 동기에 의하여 자신들을 몰아가는데 이것이 세속화의 여정이다. 르네상스 이후 세속화라는 역사의 줄기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세속화의 영향력이 강력한 현대의 기술지향적인 서양문화의 압도적인 흐름에 대하여 책임있게 테크놀로지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규범으로부터 기술적 활동을 위한 규범적 원리가 가져야 할 특징을 고찰하고, 기술 활동에 대한 규범들을 구체화시킨다. 테크놀로지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과 상호작용을 갖는다. 국가 정책으로 개발된 테크놀로지는 다시 국가 경제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장 자동화는 사람의 고용방식을 변화시킬 것이고 새로운 의료기술은 윤리적인 문제와 상충될 수 있다.

6장에서 10장까지는 기술과 과학, 경제학, 정치학, 기술적 설계과정 사이의 관계를 관찰함으로써 그것이 의미하는 결정적 측면의 일부를 추적한다. 이 관찰은 기술주의에 의해 이루어진 기술과 성경에 근거한 규범적 원리에 옹한 기술을 대조적으로 비교한다. 이러한 음미는 현대 사회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보충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두 장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술의 진보를 일종의 구원으로 여기는 기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위해 요구되는 책임에

대하여 논한다. 첫째는 현대의 기술사회의 오류를 선지자적으로 증거하는 것인데 선지자적인 증거의 성격과 증거의 내용과 새로와진 양심의 작용을 논한다. 둘째는 각 사람들이 기술사회 안에서 테크놀로지가 하나님의 규범적 의지에 따라 수행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책임이다. 하나님의 규범적 의지에 따라 테크놀로지가 수행되어야 할 책임이 공학자나 정책입안자 같은 테크놀로지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마지막 장에는 각 사람이 시민으로서 공유하는 책임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주어지는 책임을 비교해서 책임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한다.

III.

본서는 테크놀로지가 성경적 규범에 따라 수행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테크놀로지가 관계되는 영역들을 위하여 규범적 원리들을 제시하였고 테크놀로지가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했다. 그것이 이 본서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전반적인 테크놀로지를 위한 성경적 규범은 충분히 제시되었으나 특별한 분야에 종사하는 공학자나 정책입안자가 그 분야의 문제점들과 규범을 충분히 아는데는 좀 부족할 것이다. 테크놀로지가 성경적 규범대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직접 관련된 사람의 책임뿐 아니라 시민으로 공유하여야 할 책임을 제시하고 공동의 책임을 달성하는 전략까지 제시하여 단순한 이론으로 그치지 않은 것은 탁월한 점이다. 그래도 석연치 않음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이유 때문이다. 테크놀로지의 개발에 시간을 다투는 테크놀로지의 경우 그것의 개발을 제시된 규범에 따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가?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되어 개발을 포기한 테크놀로지가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누군가에 의하여 개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의 영원한 숙제이다. 본서는 성경적 규범을 따르는 테크놀로지를 위한 좋은 발판이지만 각자가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위한 문헌들을 병행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규범적 의지를 따라 테크놀로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